

SESSION 4

Jesus Visited the Temple 예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다

Session summary

In this session, we learn about Jesus' zealous love for God's Word. As a young boy visiting the temple, Jesus asked questions and gave answers to the religious leaders. Jesus' parents misunderstood His reason for being there, and Jesus responded by claiming to be involved in His Father's work. Jesus was a fully human boy, yet totally devoted to His Father and submissive to His earthly parents. We join Jesus in being about His Father's work, as we are also called to grow in wisdom and obedience as we showcase His glory.

세션 요약

이 세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대해 배웁니다. 어린 시절 성전에 방문하셨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이유를 오해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 소년이셨지만,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하고 지상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지혜와 순종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Scripture

Luke 2:40-52 누가복음 2:40-52

The Point

Jesus modeled for us love for God's Word and obedience to God's will.

요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INTRO/STARTER 5-10 MINUTES

Option 1

The Bible gives us just one precious window into the childhood of Jesus. This glimpse came from Luke, who had likely interviewed Jesus' mother, Mary, as he wove together his account of Jesus' life. Luke previously described Mary's thought process and feelings, how she pondered the events of Jesus' birth and treasured them in her heart. Luke only could have received such intimate details from eyewitness testimony.

But why this story? And why does it center on Jesus at the temple? When you consider all of the events Luke could have recounted—including the death of Jesus' father Joseph, Jesus' career as a carpenter, or His relationship with His brothers—we wonder why Luke gave us this story and not others. What is so important about Jesus' boyhood visit to the temple?

Is it difficult for you to imagine what Jesus' life was like as a child? Why or why not? What aspects of Jesus' childhood are most intriguing to you?

선택지 1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단 하나의 창을 제공합니다. 이는 누가에게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인터뷰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생각과 감정,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했는지에 대해 이미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만 이처럼 친밀한 세부 사항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왜 성전에서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죽음, 예수님의 목수 생활, 형제들과의 관계 등 누가가 기록할 수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왜 누가는 다른 이야기기 아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전 방문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삶이 어땠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습니까?

Option 2

Have you ever heard the phrase, “The only bad question is the one left unasked”? Questions help us establish facts, get to know people, and explore new possibilities. The Bible’s first mention of Jesus speaking said that Jesus asked questions of the religious leaders and teachers in the temple.

Why do you think Jesus, as the Son of God, asked questions of these teachers and religious leaders?

Despite being the Son of God and having intimate knowledge of His Father, Jesus still spent time in the temple (His Father’s House), listening to the Scriptures (His Father’s Word). He demonstrated a hunger for God’s presence and God’s Word, even from a young age. We can follow Jesus’ example, no matter how old we are, to ask questions, to grow in our knowledge of God and His Word, and to simply spend time in the presence of the Father.

What are some questions you want to ask God or some things you want to know about Him?

How can we learn from His Word in new ways? Who do you know that would be willing to discuss some of your questions with you?

옵션 2

"유일한 나쁜 질문은 묻지 않은 질문뿐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질문은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알아가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 언급된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에 대해 깊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아버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성경(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한 갈망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질문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키우고, 단순히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나 그분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귀하의 질문에 대해 논의해 줄 의향이 있는 사람을 아십니까?

HIS STORY 15-20 MINUTES

THE POINT

Jesus modeled for us love for God’s Word and obedience to God’s will.

요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Characters

Jesus: the eternal Son of God;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Mary and Joseph: Jesus’ mother and earthly father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마리아와 요셉: 예수의 어머니이자 지상의 아버지

Plot

Today’s session is really the only account we have from Jesus’ childhood. The Gospels focus their attention on Jesus’ life, ministry, death and resurrection, and rightly so. However, God intended this portion of Jesus’ childhood to be included in the Gospel of Luke for a specific reason. It highlights Jesus’ humanity and divinity, and gives us an example of what we should prioritize in our own lives.

줄거리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 사역, 죽음,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중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 포함시키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고, 우리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JESUS LEARNED GOD'S WORD

Jesus grew up in Galilee, among Jewish people who didn't take the observance of God's law that seriously. In contrast, the Jews in the South (Judea) were more meticulous in their observance of the Law. Even though Jesus' family lived among marginal, nominal Jews, they were faithful to the Law of God. As an example, Luke wrote that Joseph and Mary went to Jerusalem every year for the Passover—a ten-day walk from Galilee.

In this passage, Jesus was twelve years old and growing in wisdom and knowledge. As a child, Jesus would have learned to read in the synagogue. It was a place where children were taught to read, using the alphabetical Psalms to learn their letters. (See Psalm 119.)

40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filled with wisdom. And the favor of God was upon him. 41 Now his parents went to Jerusalem every year at the Feast of the Passover. 42 And when he was twelve years old, they went up according to custom. 43 And when the feast was ended, as they were returning, the boy Jesus stayed behind in Jerusalem. His parents did not know it, 44 but supposing him to be in the group they went a day's journey, but then they began to search for him among their relatives and acquaintances, 45 and when they did not find him, they returned to Jerusalem, searching for him. 46 After three days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sitting among the teachers,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them questions. 47 And all who heard him were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s. (Luke 2:40-47)

The custom was for families to travel in groups for safety, with the men separate from the women. Perhaps this explains why the young Jesus was “misplaced.” Maybe Mary assumed He was with the men while Joseph thought He still might be traveling with the women. At twelve years of age, He could have been with either group. Maybe His parents thought He was with another one of the family members.

Mary and Joseph's group left for Galilee and traveled one day before anyone noticed Jesus was gone. Apparently, they then turned around and walked another day back to the city. They spent the third day looking all over for Jesus. Imagine their relief when they returned to the temple court and found the young boy sitting with the teachers, absorbed in listening to their teaching. When He returned as a young rabbi, Jesus would use the same area of the temple court for His own teaching (Matt. 21:14,23; 26:55; Luke 19:45).

If you look closely at the text, you will notice that Jesus was not simply teaching the elders—Luke said Jesus was listening and asking questions. He was of the age where He was expected to interact with adults in matters of the Old Testament. However, those who heard Jesus in the temple were surprised by the understanding Jesus displayed in His answers.

Even though He is the Son of God, Jesus listened to and asked questions of the teachers in the temple. What can we learn from His example?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반면, 남쪽(유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소외되고 명목상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매년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기록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열흘 동안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열두 살이었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은 회당에서 읽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회당은 아이들이 시편을 통해 글자를 익히며 읽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참조)

40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41 그의 부모는 유월절 때마다 매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42 예수께서 열두 살이 되셨을 때, 그들은 관습대로 올라갔습니다. 43 명절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44 그들은 예수가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친척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45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46 사흘 후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47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그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40-47)

당시에는 안전을 위해 가족이 무리 지어 이동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남자와 여자는 따로 여행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어린 예수가 "길을 잃은"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남자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고, 요셉은 예수가 아직 여자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열두 살이었기에 어느 무리와도 함께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부모는 예수가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일행은 갈릴리로 떠나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하루 동안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들은 돌아서서 다음 날 다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사흘째 되는 날 내내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들이 성전 딸로 돌아왔을 때, 어린 소년이 선생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가르침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도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랍비로 돌아온 예수님은 성전 딸의 같은 공간을 직접 가르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마태복음 21:14, 23; 26:55; 누가복음 19:45).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장로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듣고 질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 어른들과 소통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드러나는 이해력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성전에서 선생들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JESUS WAS INVOLVED IN GOD'S WORK

When Jesus' parents found Him, He was surprised by their reaction to His "disappearance." Why did His parents have to search for Him? He seemed puzzled that they did not know to go straight to the temple. After all, He had to be there, right? Where else would He be? Look at how the story progressed.

48 And when his parents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And his mother said to him, "Son, why have you treated us so? Behold, your father and I have been searching for you in great distress." **49** And he said to them, "Why were you looking for me? Did you not know that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50** And they did not understand the saying that he spoke to them. (Luke 2:48-50)

Mary's question is typical of any mother. She sounded like any exasperated mother would after experiencing a missing child. However, Jesus seemed surprised that His parents would be searching for Him.

The question about the way Jesus treated them was not designed for an answer. Mary was making a point. They couldn't understand why Jesus was gone for three days.

Jesus did not respond to Mary's question. Instead, He responded to her second statement, "We have been looking for you." In youthful simplicity, Jesus wondered aloud why they had to search for Him. His answer indicates that He thought it would be clear where He was—in His Father's house—attending to His father's business. There was no negligence or inconsiderate behavior here. Jesus acted on His own understanding of who He was.

John's Gospel often presents the "misunderstood Jesus." Whenever Jesus said something deeply spiritual, His listeners almost always responded misunderstanding (John 3:9; 4:11). Luke provided a small window into His youthful life and showed that Jesus was misunderstood as a young man, even by those who loved Him the most.

Jesus' family misunderstood His task, but Jesus did not. In fact, in the temple, Jesus displayed a startling clarity. He knew precisely where He was supposed to be and what He was supposed to be doing—He was supposed to do His Father's work. He engaged with the text of Scripture, together with a community of men who had come together around God's Word. He did not appear to be dominating the scene; rather He asked questions right along with everyone else. The ability to formulate a meaningful question was and still is highly regarded among the rabbis. Often there is more learning in the question than in the answer.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부모님이 예수님의 "실종"에 보인 반응에 놀랐습니다. 부모님은 왜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을까요? 부모님은 성전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에 당황하신 듯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야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이 아니라면 어디에 계실까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세요.

48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대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애타게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4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50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8-50)

마리아의 질문은 모든 어머니의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마치 아이를 잃은 후 몹시 화가 난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에 놀라신 듯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이 왜 사흘 동안 떠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의 두 번째 대답, "우리가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에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특유의 단순함으로 왜 부모님이 자신을 찾아야 하는지 큰 소리로 궁금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즉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어떤 태만이나 무례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종종 "오해받는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오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요한복음 3:9; 4:11). 누가는 예수님의 젊은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창을 제공했고, 예수님이 젊은 시절, 심지어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오해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분명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함께 성경 본문을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현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질문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랍비들 사이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종종 질문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99 Essential Doctrines: Sinlessness of Jesus

While the Bible affirms the full humanity of Jesus, it also affirms that Jesus was completely sinless throughout His earthly life (2 Cor. 5:21; Heb. 7:26; 1 Pet. 2:22). Nevertheless, because Jesus was fully human, He experienced real temptation of sin, as seen during His trials in the wilderness (Matt. 4). Yet even though His trials and temptations were real and similar to the rest of humanity's, Hebrews 4:15 confirms that Jesus did not sin.

99가지 필수 교리: 예수님의 무죄함

성경은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 동안 완전히 죄가 없으셨다고도 단언합니다(고후 5:21; 히 7:26; 벰전 2: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기에 광야에서 시련을 겪으실 때처럼 실제적인 죄의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마 4장). 예수님의 시련과 유혹이 다른 인류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이었고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음을 입증합니다.

JESUS GREW IN FAVOR WITH GOD AND OTHERS

For the second time, Luke stopped the action and threw the spotlight on Mary.

51 *And he went down with them and came to Nazareth and was submissive to them. And his mother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52* *And Jesus increased in wisdom and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Luke 2:51-52)

The first time Luke focused on Mary was after the shepherds had come and gone with their news of angelic glory and a remarkable message. At that point the narrative pictured Mary alone, treasuring and pondering all that happened around and in her (Luke 2:19). That was the sort of young woman she was: thoughtful and meditative. Twelve years later, she still stored these images in her heart, as she would no doubt be doing for the rest of her life.

The statement in verse 52 corresponds to the beginning of this story (Luke 2:40). The parallel statements indicate that Jesus grew in wisdom and in favor. The favor Mary first found with God was lavished upon Jesus' life as well (Luke 1:30). The favor Jesus had with people would return in the early years of His ministry, as He would be hounded by the crowds. But as the popularity of His messianic vision began to erode, Jesus would eventually be left alone without anyone's favor as He died on the cross.

So often, we focus on Jesus as a radical outsider and we overlook the fact that Jesus had close relationships throughout His life. Beginning in the temple, where the elders appreciated His first-rate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s, Jesus would continue to receive praise from the people who could only notice that Jesus spoke and lived differently.

Jesus' kindness and compassion, as well as the moving words He spoke, drew men and women to Him throughout the brief years of His time on Earth. This is what He had in mind when He encouraged His followers to shine like lights in a darkened world. We are not to hide our lights, just as Jesus did not. Whatever the cost, we must risk gaining favor as Jesus gained favor, by engaging with the Word and the world around us.

예수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으셨다
누가는 두 번째로 이야기를 멈추고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51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52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누가복음 2:51-52)

누가가 마리아에게 처음 초점을 맞춘 것은 목자들이 천사의 영광과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왔다 간 후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홀로 서서 주변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누가복음 2:19). 마리아는 바로 그런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사려 깊고 묵상력이 깊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이러한 기억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평생 그럴 것입니다.

52절의 말씀은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누가복음 2:40)과 일치합니다. 병행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셨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삶에도 풍성하게 베풀어졌습니다(누가복음 1:30).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사랑은 사역 초기에 군중에게 쫓기시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적 비전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극단적인 소외자로만 여기고,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장로들이 그분의 성경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높이 평가했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말씀과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로 부터 계속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친절과 연민, 그리고 감동적인 말씀은 짧은 지상 생활 동안 사람들을 그분께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어두운 세상에서 빛처럼 빛나라고 격려했을 때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빛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얻으셨듯이 우리도 말씀과 우리 주변 세상에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얻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CHRIST CONNECTION

Jesus experienced the confusion all young people feel as they begin to learn that God has a calling on their lives. The Gospels readily portrayed the difficulty Jesus experienced. Jesus was not some sort of superman; He experienced conflict with His family even as a young boy.

As a grown man, Jesus faced conflict with the teachers of the law and with His own disciples. He was frequently misunderstood, yet never lost sight of God's call and purpose for His life. Even when Satan challenged Jesus' identity in the wilderness, Jesus remained faithful and obedient to His Father.

Like Jesus, as we attempt to follow God, we will be misunderstood. Our new identities in Christ will be challenged by those around us, even members of our own families. Still, if we follow Jesus' example, empowered by His grace, we too can remain obedient to the call on our lives.

그리스도와의 연결

예수님은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부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혼란을 경험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겪으신 어려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슈퍼맨도 아니셨고,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성인이 되신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 제자들과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삶의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도전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충실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주변 사람들, 심지어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고 그분의 은혜로 힘을 얻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 삶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YOUR STORY 10-15 MINUTES

Group Questions

God's Story has always been designed to connect with your story. It is because of His Story that our stories make sense, have meaning, and carry on into eternity. Use the questions below to help think through how His Story connects with your own.

What are some ways your church cultivates a love of learning when it comes to God's Word? Answers will vary.

At this stage of Jesus' life, what do you think it meant for Jesus to say He was involved in His Father's work? How does our involvement in our Father's work grow as we mature physically and spiritually? Involvement in God's work will change and grow over the course of a believer's life. A person who trusts Jesus as Savior at a young age will have a different type of involvement than that of an adult Christian who has been walking with God for quite some time. However, regardless of life state or age, every Christian is called to participate in Kingdom work, whether it be faithful commitment to youth group as a sixth grader or taking a semester off of college to travel overseas for a missions project.

What was the connection between Jesus' love for God's Word and His involvement in God's work? In what ways do God's Word and God's work intersect in your own life? God's Word will always be the believer's fuel to accomplish God's Work.

Like Jesus, what character qualities should we try to cultivate in our own lives in order to grow in favor with those around us? Answers will vary.

그룹 질문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당신의 이야기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덕분에 우리의 이야기는 의미를 갖고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을 통해 그분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배우는 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의 과정에서 변화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온 성인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상태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청소년부에 충실히 헌신하든, 대학에서 한 학기 휴학하여 선교 활동을 위해 해외로 떠나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신 것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항상 연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어떤 성품을 기르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YOUR MISSION 10-15 MINUTES

Head

Knowing Jesus was involved in biblical discussions as a young person teaches us that young people should be involved in biblical discussions today, as well. Not only that, but we should also realize that the questions students bring and the answers they offer are beneficial to the discussion. In other words, people shouldn't assume that a young person's contribution will be overly simplistic. The church is a community of believers that is centered on the Word, and all age groups should be a part of the discussion.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meaningful conversation about the Bible with someone in a different age group within your church? Answers will vary.

Why is it important for churches to learn from the Scriptures together? Learning together is important for application—other people will help you to apply God’s Word to various parts of your life.

머리말

예수님께서 젊은 시절에 성경 토론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날 젊은이들도 성경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과 답변이 토론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젊은이들의 참여가 지나치게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모든 연령대가 토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습니까? 답변은 다양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함께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함께 배우는 것은 적용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다양한 부분에 적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Heart

All young people arrive at a time in life when they must choose whether or not they want to make their parents’ faith their own. Even though this account is unique to Jesus, the divine Son of God, we can nevertheless draw application from it for our own lives. Even if we have Christian parents and siblings or go to church on a regular basis, we have to reach a point in our lives where we take personal ownership of our faith.

Why is it important to emphasize that borrowed faith isn’t real faith?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Borrowed faith is something you simply adopt because your parents or surrounding culture believe it. Having parents who pass down the Christian worldview isn’t a bad thing. However, there comes a time when more is needed. To truly be a follower of Christ people need to own the faith for themselves.

Have you grown up in a home with other Christians? If so, in what ways has that influence encouraged you to take ownership of your own faith? Answers will vary.

마음

모든 젊은이들은 인생에서 부모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 것인지 아닌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그리스도인이거나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우리는 삶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권을 갖는 시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빌려온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빌린 신앙은 부모나 주변 문화가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물려받은 부모가 있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때가 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격려했습니까?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Hands

Being both fully human and fully divine, Jesus knew well what it was like to be a part of an earthly family. He was fully obedient in honoring His father and mother, and thus able to fulfill this law for us in our place. The fact He was obedient even when misunderstood reminds us that the authority God places over us is not dependent on our own feelings. In obedience to God’s Word, we must honor those God has placed in authority over our lives.

How is our honor for those in authority a demonstration of our honor toward God? When we honor those in authority, we recognize that God is sovereign and good, and He has placed these individuals in our lives for a reason. As we honor those in authority, we honor God as well.

When is it difficult for you to show honor to those in authority? How can Jesus’ example encourage you during those times of difficulty? Answers will vary.

손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자 온전한 신이셨기에, 지상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데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이 율법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해받을 때에도 순종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가 우리 자신의 감정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권위자로 세우신 사람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공경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권위 있는 사람들을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선하시며, 그분께서 그들을 우리 삶에 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들을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공경을 표하기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요? 예수님의 모범이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격려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TIMELINE

Jesus' Early Years

Jesus grows in favor with God and men.

Jesus' Baptism

The meaning of baptism in the life of the believer.

Jesus Overcomes Temptation

Where Adam and Eve and the early Israelites failed, Christ succeeded.

**Special session*

Who is He?

The disciples learn Jesus' identity and the purpose behind why He came.

The Calling of the Disciples

Jesus invites ordinary people to follow Him.

Born Again

Nicodemus encounters Jesus and learns about the new birth.

LEADER PACK

For this session, refer students to pack item #6, which contains an informational graph highlighting the biblical teaching concerning Jesus' full humanity and full divinity.

ADDITIONAL INFO

Additional Resources

Check out the following additional resources:

Leader Training Videos

One Conversations

Midweek Studies (to access your Midweek Study, go to lifeway.com/TGPRescueSpr17)

Circular Timeline Poster

App (for both leader and student)

Additional suggestions for specific groups are available at GospelProject.com/AdditionalResources

And for free online training on how to lead a group visit MinistryGrid.com/web/TheGospelProject